

# ‘혁신도시 시즌 2’ 나주시 전대병원 유치전

## 정주여건 개선...문화·복지 콘텐츠 확대 차원

나주시가 전남대학교병원 유치 추진을 위해 데스크포스킵(TF) 구성과 범시민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해 유치전에 본격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문화·복지 콘텐츠 확대 차원으로 보인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5일 나주시청에서 전남도 출퇴근자단과 시정 간담회를 열고 시정 주요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부지 2만 평 이상 무상 제공과 병원 임직원 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내용을 지난 2월 전남대병원측에 제안했다”면서 “KTX와 SRT 나주역 정차, 광주·무안공항과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과 편의성 등

을 부각시키고 전대병원 유치 TF팀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나주역과 무안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전국의 의료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중국인 등 의료관광객 수요 창출 등이 기대돼 나주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병원 위치와 관련된 질문에 “광주~강진간 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이 지나는 곳에 들서면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도로 인근에는 나주 봉황면 전남대 농과대 수의학과 소우 실습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주로 유치가 결정될 경우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또 범시민유치위원회에도 발족해 적극

유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대병원은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 병원을 이전 신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전공대와 관련해 한전공대 나주 설립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공대는 한전본사,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등 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해 있는 나주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한전공대가 나주에 빠르게 설립되기 위한 나주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대 입지선정을 위해 진행되는 한전의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한 면밀한 동향파악을 통해 한전이 요구할 때 나주시가 준비한 입지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와 전남대병원 유치 문제는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역 간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모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 중점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특히 한전공대는 지역 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면서 지역 간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공약을 바탕으로 ▲빛가람 문화복지 지역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4건 2199억원 ▲한전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 건립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사업 등 14건 7561억원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사업 육성 사업 등 원도시와의 생생발전 사업 2건 1500억원 등 총 20개 사업을 지역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시했다.



〈한국신문협회 제9공〉

## “신문은 민주사회 지탱하는 공공재”

### 한국신문협회 신문의 날 기념식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 참석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이 5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은 한국신문상 시상식에 이어 이병규 회장의 환영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축하연에는 회원사 발행인 및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문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신문의 공공성은 어느 매체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신문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언론도 바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늘 제62회 신문의 날을 계기로 신문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公的) 자산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

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뉴스가 곧 신문이던 시절, 신문은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는 권력에 대한 감시,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기능과 같은 공적 역할은 오히려 신문의 몫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뉴스생태계에는 출처와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가 저널리즘의 탈을 쓰고 넘쳐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바른 신문재가 경원시되는 개탄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신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체로, 신문의 공공성은 어느 매체로도 대신할 수 없다”며 “신문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언론도 바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늘 제62회 신문의 날을 계기로 신문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公的) 자산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

## 문화수도 조성위 출범

대통령 소속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성위)가 출범했다.

이번 조성위는 지난해 초 전기 조성위가 임기 만료로 해체된 지 1년여 만에 꾸려졌다. 전기와 달리 광주·전남지역 인사 4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권행 위원장 등 제7기 민간 위원 13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불어불문학회장을 맡고 있다.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다. 문화정당을 포함한 광주 전역에 문화 인프라와 소프트 웨어를 구축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 타워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들은 최 위원장, 김혜원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 부사장(부위원장),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남호정 전남대 교수,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 심원섭 목포대 교수, 우윤택 카이스트 교수, 이무용 전남대 교수, 정유나 상명대 교수, 최규학 한국외대 초빙교수, 한승미 연세대 교수, 하진 전남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 13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18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 조성위 1차 회의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을 발표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조성위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방송사 중계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 박근혜 ‘운명의 날’ 오늘 1심 선고 오후 2시 TV 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범민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따라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운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은 범민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 결정을 방송을 통해 담당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가 범민중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피고인 등 소송 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선번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제의 요구 규탄’

광주시민사회단체는 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제의 명분없는 제의 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주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인권전문가인 인권윤부즈맨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시대적 흐름인 시민 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도시 광주에서는 더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유린, 회계·인사 비리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인권전문가인 인권윤부즈맨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시대적 흐름인 시민 참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도시 광주에서는 더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유린, 회계·인사 비리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식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